

기독교적인 포스트모던 예술은 가능한가?

최태연 (백석대 기독교철학)

1.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실재의 본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파악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르네 데카르트가 대변하는 전통적인 서구 철학자들은 그 동안 ‘나’라는 존재를 사고나 인식의 주체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철학자들은 인식 주체인 ‘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성에 기초하는 이른바 ‘존재의 형이상학’을 해체한다.그들에 따르면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리멸렬한 무의식적 충동이거나 욕망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몇몇 철학자들이 흔히 ‘주체의 상실’이니 ‘주체의 죽음’이니 또는 ‘인간의 죽음’이니 ‘휴머니즘의 죽음’이니 하고 일컫는 현상이다.”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2004, 55)

2. 포스트모던 아트란 무엇인가?

“포스트모던 상상력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예술의 이상에 좌우된다. 고전예술은 자연의 미와 아름다움을 이상으로 삼아 그것을 모방했다. 반면에 근대예술가는 주관적 시야와 감성에 의해 인위적인 미를 창조했다. 근대예술은 고전예술이 지향했던 절대적 이상을 인간적 노력으로 도달하려 했다. “결국 이 시도의 실패가 포스트모던 이상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포스트모던 예술은 미의 절대적 이상을 포기하고 개인적 상상의 세계로 뛰어 들었다. 근대는 [19]60년대 후반 미술계를 주도했던 팝아트의 도래와 더불어 종말을 맞았다. 그 뒤를 이은 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적 감성을 대변했다. 포스트모던 예술은 근대의 추상적 예술과는 달리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초현실적 표현주의를 지향한다”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1999, 136)

3. 포스트모던 아트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길 잃은 개념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판단들은 하나같이 임의적이고 제각각인 것이 되었다. 여기서도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같이 통합적 가치의 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미의 관념들은 대개 출처가 다양한 요인들이 되는 대로 뒤섞이면서, 그때그때 어설픈 판단들에 의해 급조되어진 것들이다.이처럼 지식의 상부구조가 점차 모호하고 무력한 것이 되어 갈수록, 행위와 양식을 구속하는 훨씬 강력한 질서가 꺾기해 왔는데 그것은 예컨대 시장거래량이나 경매낙찰가, 유명미술관과의 관계 등, 초단순하고 계량 가능한 실용주의적 지식들로 된 하부구조였다. 이는 최근 들어 창작영역 전반이 그 표면적인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탈진현상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심상용, “예술과 구속, 예수의 방식으로 예술하기“, 『현대미술, 구속과 부패사이』, 2007, 12)

“밀레니엄을 앞둔 세기말이 영국에서는 <센세이션>이란 충격적인 전시로 보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하비는 어린이들을 연속 유괴한 악명 높은 인질범을 사회 유명인사 처럼 보호받아야 할 인

물로 묘사했는가 하면 오피리는 어처구니 없이 성모 마리아 초상을 포르노잡지에서 올려낸 이미지와 코끼리 배설물과 함께 진열했다. 데미안 허스트의 ‘절인 상어’는 육중한 실물상어를 의학용으로나 사용하는 포름 알데이드로 보관한 잔인한 표본이다.

“심지어 마크 퀸은 자신의 몸에 흐르는 혈액 4리터를 뽑아 만든 ‘핏덩어리 두상’으로 보는 사람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렸고, 존 아이작스의 부스러미 난 비만한 신체조작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었다. 그 외에도 사람의 장기를 드러내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미술계를 아연실색케 했다. 이들은 추와 엽기를 극한까지 추구하였다. 선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작업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심오한 것에 대한 어떤 흥미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어떤 인간이나 예술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조차 경멸하며 예술의 상석에 악덕을 덜컥 올려놓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서성록, “미술의 회복을 꿈꾸며”, 『현대미술, 구속과 부패사이』, 2007, 100-101)

결론: 포스트모던 아트의 문제점

- 1) 예술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통합적 가치의 소멸
- 2) 상업적이고 실용주의적 하부구조의 지배에 의한 예술활동의 타진
- 3) 추와 엽기를 매체로 하는 부정의 문화의 확산
- 4) 감정주의와 허무주의에 예술경험을 의존

3. 포스트모던 예술의 대안적 이해

1) 예술적 역사주의 관점

예술도 시대의 한계 내에서만 기능하며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 포스트모던 아트도 시대의 예술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미지의 미래로 나아간다.

“예술로서의 예술에 관한 한, 그것의 역사는 완전한 개방성 속에서 종말을 고하였으며, 이 개방성 속에서 미래의 기술혁신은 단지 종말에게 요구되는 바를 획득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다. 예술의 종말은 예술가들의 해방이다. 그들은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않은지를 확증하기 위해 실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해줄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시각예술작품이 무엇처럼 보일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협적인 구속은 더 이상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시각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술사의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의 일부이다.”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1997, 360)

“우리는 험거인도 아니고 독실한 중세인도 아니며 바로크의 왕자들도, 새로운 양식을 개척하는 파리의 보헤미안들도, 중국의 문인들도 아니다. 물론 그 어떤 시대도 그들의 삶의 형식을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삶의 형식들의 예술과 관련을 맺을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모든 형식들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과거의 형식들과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형식들과 관련을 맺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서 살고 있는지를 일부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초래하는 하나의 귀결인데, 이러한 사태는 ‘예술작품’이라는 용어의 외연이 개방됨으로 해서 더욱 더 촉진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 미래의 인식 불가능성이 가져다주는 총체적 귀결이기도 하다”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1997, 361)

포스트모던 예술의 구성원리인 혼성모방: 루벤스+ 피카소= 리셀 코너

그림 [1] 루벤스, <레우키포스의 딸들의 약탈>(1618)



[그림 2] 피카소, <아비뇰의 아가씨들>, 1907



[그림 3] 러셀 코너, <뉴요커들에 의한 모던 아트 납치>(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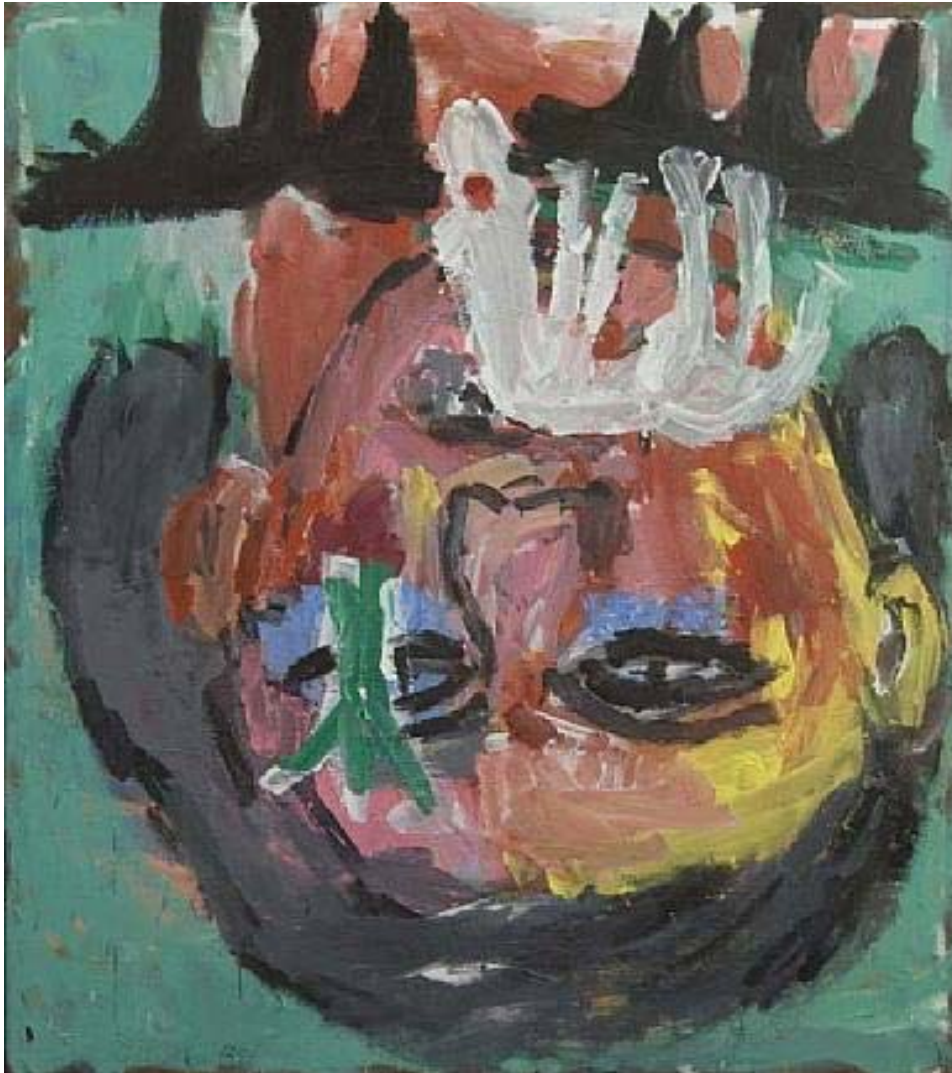
2) 예술적 역설주의 관점

예술은 실재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실재는 이중적(밝음-어둠, 현실-가상) 내지 다면적(긍정, 부정, 긍정도 부정도 아님) 이므로 서로 다른 측면을 역설적으로 연결하여 묘사함으로써 실재의 전체적 진리를 표현하려고 한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불신과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우러나오는, 인간이 감추고 있는 정체의 추구는 우리를 아주 독특한 그림의 세계로 이끈다. 바젤리츠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허위를 벗어난 진실한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해 내면에 응크리고 있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해 세상을 거꾸로 대하고 있는 괴물들의 모습과 전율하듯 온통 움직임을

으로 가득한 공간은 매우 심리적이고 복잡적이며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상처에 대한 강박과 상처로부터 확인되는 인간의 미미한 모습들, 그 초라함을 그리면서도 그는 오히려 초라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박정욱, 『거꾸로 서있는 미술관』,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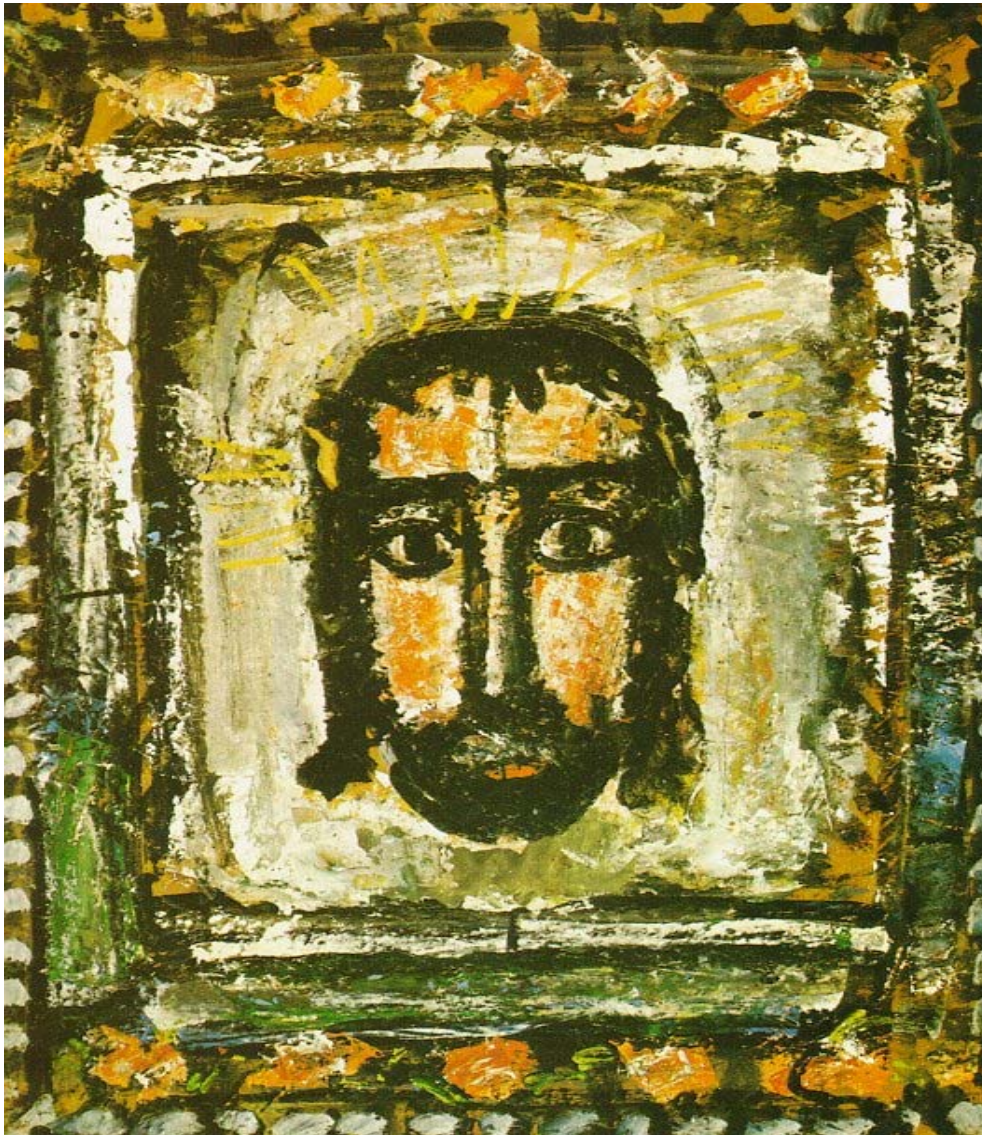
[그림 4] 바젤리츠, <깨어진 다리> Motivschimmel-Zerbrochene Brucke (1986)



3) 구속적(Redemptive) 관점

어떤 예술에도 창조와 타락의 악함이 공존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성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에 의해 새로운 구속의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림 5] 루오, <거룩한 얼굴> (1920년 경)



[그림 6] 놀데, <성스러운 밤> (1912)



4. 포스트모던 구속적 아트(Postmodern Redemptive Art)

포스트모던 양식을 따르면서도 작품 안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세 차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7] 폴섬 (Folsom) 1



[그림 8] 폴섬 (Folsom) 2



[그림 9] 폴섬 (Folsom) 3

